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뉴욕주, 국경 지대에 주 방위군 배치하지 않기로하다

Cuomo 주지사: “뉴욕은 국경을 따라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이처럼 비인도적인 처사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상대로 한 행정부의 과도한 처사는 도덕적 분노심을 일으키고 뉴욕주와 이 나라를 건설한 토대가 되는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맞아,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뉴욕주는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이처럼 비인도적인 처사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경 지대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와 분열이 지배하는 정치적 어젠다의 공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뉴욕주 경계와 미국 국경에서 모두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가 사용하는 불명예스러운 전술에 관한 보고서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감사관 대행에게 뉴욕주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ICE 전술을 조사해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폭행과 공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뉴욕주는 자유의 여신상에 형상화된 가치를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국인이 지닌 다양성이 가장 큰 강점이고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